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4. 윗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숲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2

국어 영역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나)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정을 ②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시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권리가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는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③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다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리핀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숲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알맹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글 시작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대상과 목적을 주고, 이로부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끌어내는군. 그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서술하려나? 그럴 거같은 한데 아직 확정은 못하겠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맞네. 일단 공정거래법의 활용인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초점을 맞춰 읽어야겠다."

+

[원칙적으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굳이 '원칙적으로'의 수식어를 덧붙여서 쓴 이유는,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예외가 등장할 수 있으니 예외가 나오면 반응할 준비를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 ㉢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 초반부 이후 독해 >

실시간으로 스위치 두 개를 계속 켜놔야 한다.

1.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이 앞의 내용에 대한 재진술·구체화인지, 아니면 범주가 다른 내용인지 판단
2. 한 범주가 끝날 때마다 해당 범주의 정보 덩어리가 전체 글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목차 만드는 느낌으로 읽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여기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뭔지 설명하겠군. 기본 정보 세팅 구간이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정의 {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

#정의에서 case가 두 개로 쪼개짐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요소를 하위 요소 몇 개로 쪼개면, 내용도 쪼개진 대로 따로 따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 저렇게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직선을 이용해 나타내 주었다.

"이후,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차례대로 나열되고 있으므로, 차례대로 넘버링 해주면서 읽는다." (㉣, ㉤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설명)

#강제 항목화

키워드에 대한 설명에서 각 설명의 범주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의미 단위로 끊어 전부 넘버링 한 후, 범주를 구분해주면 된다. 강제로 이렇게 항목화해야 지문의 내용이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앞서 [원칙적으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예외가 나오면 반응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지없이 예외가 나왔다. 예외는 총 두 가지."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아, 범주가 바뀌었구나. 이제 표시광고법의 활용인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에 문장을 붙이면서 읽어 내려가면 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 ㉢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1)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2)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 객관적 내용으로 ㉱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부당한 광고 구체화
 ㉳ 거짓·과장 광고 ㉴ 기만 광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에 화제에 대해 요소를 '공정거래법' 과 '표시광고법'으로 쪼갠다. 쪼개진 두 요소를 각각 서술할 때는, 지문에서 써주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그 두 요소를 비교, 대조해야 한다. 그 기준은 바로 '공통서술범주'이다. 같은 범주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면, 앞서 읽었던 요소와 같은지 다른지 비교, 대조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 라는 서술 범주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비교, 대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통점
형사처벌 -> 표시광고법만 해당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표시광고법에 대한 세부 설명의 연속이다. 이제부터는 '부당광고'에 대해 심사 기준을 쓸 것 같다."

추천·보증
 ㉵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1)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2)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
 "여기서도 추천 보증에 대해 케이스를 둘로 쪼갠다. 각각 위와 같이 처리해야겠다."

이용후기 광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부당한 광고가 되는 조건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다. 추상적이지 않은가...? '합리적'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에서 이를 구체화해주지 않는다면, 문제에서 이를 물어보고 싶을 때 구체화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기출이 그래왔기 때문에."

+ ㉷~㉸ 총족 -> 명예훼손 X
 "현재 서술 범주인 '부당한 광고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TMI 정보가 종종 등장하곤 한다. 잠깐 등장하는 TMI 정보가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끝까지 처리해두고 넘어가기."

결국, 정보가 이렇게 정리되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본정보 세팅)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⑤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⑥지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②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추천·보증

- ①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 (1)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 (2)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 ②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
 -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

이용후기 광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 ①~③ 충족 -> 명예훼손 X

저 문장들은 해당 범주를 대표하는 문장들이다. 그 범주의 다른 문장들이 저 문장으로 모인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정보를 저렇게 덩어리 지으며 체계 있게 목차 짜듯이 읽어 내려갔으면 된다.

4. 윗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 4번 문항 해설 >

정답: ④

① : 지문 설명에서 쓴 바와 같이 공통 서술 범주에 입각한 비교, 대조를 능동적으로 해주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통점
형사처벌 -> 표시광고법만 해당

②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나열되는 식으로 주어질 때 넘버링 하면서 잘 따라 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④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

③ : 예외 잘 잡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②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⑤ : 3번 선지와 같이 예외 잘 잡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④ 선지 판단의 근거]

추천, 보증에 대해 케이스를 둘로 나눴었다. 이때 넘버링 하면서 읽을 때 분리시켜 봤으면, 이 선지를 읽었을 때 "아, 두 케이스를 섞어 놓은 것이구나. 범주가 틀렸다."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 5번 문항 해설 >

정답: ④

① : 예외 잘 잡았으면 '작은'이 아니라 '큰' 경우라고 해야 맞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②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나열되는 식으로 주어질 때 넘버링 하면서 잘 따라 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②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

재판매 자격 유지 행위가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 재판매 자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가격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맞다.

⑤ : ㉠은 사업자 ⇔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이고, ㉡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④ 선지 판단의 근거]

지문에서 이용후기 광고의 정의를 잘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직접 올린 이용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 6번 문항 해설 >

정답: ③

< 보기 >를 지문과 연결지어 읽기

< 보기 >도 지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문의 내용과 붙이면서 읽어야 한다. 선지로 넘어가기 전에 애초에 < 보기 >를 읽을 때부터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연결해 놓아야 한다는 소리다.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

⇒표시광고법에 대한 '부당 광고 심사 기준' 설명에서 나온 예시 '이용후기 광고'에 해당한다.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

⇒지문에서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내용이 있다. '합리적 이유'의 추상성에 주의할 준비 해야함.

⇒ ①에서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는 아무리 '합리적'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도, 이것은 논쟁의 여지없이 당연히 비합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

⇒지문에서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한 사례에 해당' ⇒ ② 지문의 "(1)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에서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이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이용후기의 예시에 해당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

⇒지문 맨 마지막에 나온 TMI 정보에 해당. 선지에서 "①객관적 내용으로 ②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③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의 조건에 따라 판단 유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여지없이 ⑤번 선지에서 물어본다.

[③ 선지 판단의 근거]

①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1번 설명 ①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에 완벽히 모순되는 말이므로 3번 선지는 틀렸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④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숲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 ①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	⋮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 ④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⑤

9. 윗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 ②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③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 ④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 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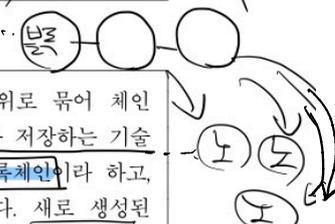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업체는 최근 A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 ①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 ②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 ③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 ④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 ⑤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오기

블록체인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합의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의 계산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 감소하면) 보안성은 높아진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 증가하면) 성능은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려고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O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X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X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O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O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 2.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3.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 4.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 5.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2.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3.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4.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5.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비공개

<보 기>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속도 ↓

이거

- ①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 ②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 ③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 ④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 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①(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 ②노드들은 (1)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2)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 ③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 ④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 ⑤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일행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내용]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시작하자마자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가 나오네. 기출문제의 빅 데이터 상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겠어"

"이어서 **블록체인**과 **노드**의 정의가 등장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구체화하고 있네. 그럼 이 글의 화제가 블록체인 기술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어서 ①~⑤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1문단이 끝나네.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로 모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 글은 초반부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궁극적으로 뭘 설명할지 주지는 않았고.. 그냥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기술**라는 키워드에 어떻게 붙는지 판단해야겠다. 바로 다음 내용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 확실해 지네."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 사용한 장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

1. 용어의 개념·정의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개념·정의의 파트가 나오면, 해당 단어에 박스치고 필요하면 2~3번 정도 읽으며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용어가 무엇인지 알려준 이후에 평가원은 학생이 그 용어의 뜻을 안다는 전제 하에 글을 쓰기 때문이다.

2. 극단적 범주

양 극단에 있는 범주를 뜻하는 용어는 내용 파악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ONLY(다만, ~만, 오직 등) <-> ALL(모든, 항상 등)" 과 같은 워딩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 극단적 범주를 일부러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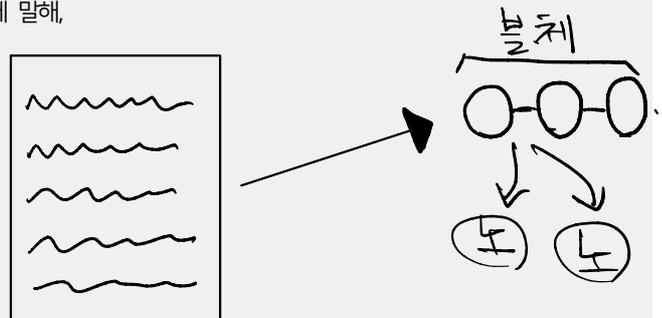
3. 순서·과정

평가원 지문에는 일련의 순서, 과정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의미 단위로 끊어 차례대로 넘버링하며 정리하는 것이 좋다.

4. 시각적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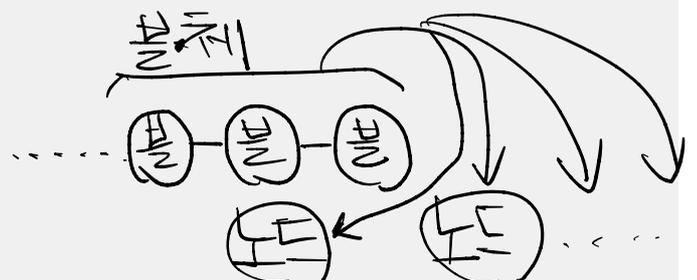
정보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는 비문학 지문은 정보를 '글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문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정보를 글로 전달하는 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로 재구성한다.

쉽게 말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지문 초반부에 이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사용될 정보이다. 근데, 아래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데 우리는 필기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계속해서 저 과정을 반복하며 읽어 내려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옆에 정보의 형태를 '글->그림'으로 바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지문 독해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①(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 ②노드들은 (1)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2)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 ③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 ④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 ⑤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①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②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③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①(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보안성**은 ①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②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과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 **탈중앙성**은 ①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②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과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 **확장성**은 ①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②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과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 초반부 이후 독해 >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에 대해 정의하고, 이후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 범주를 바꿔 블록체인 기술을 '공개형과 비공개형' 이렇게 둘로 쪼개고 (요소 쪼개기 활용-2509 [4~7] 지문에서도 활용되어 설명한 바 있다.), 그 둘을 비교·대조 하고 있군. 공통 서술 범주에 입각해 파악해두면 되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다.

- 1) 합의 알고리즘 속도, 승인모정에 걸리는 시간, 성능 이렇게 세가지 범주를 비교했다.
- 2) 세 범주는 (합의 알고리즘 속도)↑□(승인모정에 걸리는 시간)↓□(성능)↑ 이런 인과 관계로 엮여 있다.

앞서 용어의 개념이 정의되면 무조건 여러번 읽어서라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 정의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 정도 인과는 왜 앞에 요소가 커지면 뒤에 요소가 작아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기반해서 정보를 처리해 줬으면 된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범주를 바꿔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무결성이 높다는 설명을 하는군. 먼저 무결성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①□②□③으로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왜 블록체인 기술이 무결성이 높은지 설명하고 있어"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①(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이후, (무단 변경과 달리,)의 표지어를 통해 앞서 '무단 변경'에 대해 설명하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바뀌었음을 암시하고 있어. 여기서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그 안에 포함된 일부 데이터가 지워지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이후, 범주를 바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군. 쭉 읽어보니,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에 대해 개념을 제시한 후, 각 특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관계를 인과 과정을 섞어 각각 서술하고 있어."

"**항상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정보가 이전에 제시된 정보인지 새로운 정보인지 구분하는 스위치를 켜 놓아야 한다고 했다.** 보안성 개념에서 ①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렵다는 성질'은 앞에서 '무결성'이라고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때, 반응을 해주면서 **아! 그러면 보안성이 무결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인지해주면 된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특성' 키워드를 들고 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 사용한 장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

1. 요소 쪼개서 나열

어떤 요소를 쪼개고, 이를 나열할 때는 의미 단위로 쪼개면서 각각의 요소를 넘버링 하며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의 정의를 준 부분을 SSUL이 어떻게 읽었는지 보면 된다.

보안성은 ①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②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탈중앙성은 ①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②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확장성은 ①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②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2. 인과 과정

원인과 결과가 주어지는 과정에서는, 보통 요소 단위로 쪼개서 요소 간 관계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SSUL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작아지고 커지는 요소를 괄호로 묶고, '커진다, 작아진다, 높다, 낮다' 등의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는 저렇게 시각적으로 방향키를 남겨주고 요소 간에 화살표로 이어주면 훨씬 정보가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다가 내린 결론이다.

(※ 단, 표시는 그냥 정보를 좀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다. 이게 커지면 왜 저게 작아지는지 이해를 하면서 표시하는게 베스트이다. 이해가 안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처리하고 넘어간다. 지문에서 이해를 안 시켜주면 문제에서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안 물어보기 때문이다.)

3. 원칙 ↔ 예외 / 일반적 ↔ 특수상황

일반적으로

이런 대립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 나오면, 내용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로 이번 모의고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지문에서 예외 상황에 대해 출제되었다. SSUL은 저런 단어가 보이면 바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반대 상황 (특수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나오면 반응해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글을 읽어 내려간다.

4. 괄호 활용

SSUL은 지문을 읽을 때 괄호를 정말 많이 활용한다. 주로 수식어구나 수식어구처럼 어떤 단어에 걸려있는 정보 덩어리, 혹은 하나의 문장 요소 (주어, 목적어 등)가 엄청 길어질 때 이를 묶어주는데, 그게 정보 파악에 있어 엄청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③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거나 할 때 /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

어떤 경우에 괄호를 사용했는지 잘 살펴보면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넓은 범위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많이 읽어보다 보면 자신이 이 부분에 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주면 편하게 읽힌다는 느낌이 들 것인데, 그게 보통 수식어구나 수식어구처럼 어떤 단어에 걸려있는 정보 덩어리, 혹은 하나의 문장요소 (주어, 목적어 등)가 엄청 길어질 때라는 것이다.

5. 항상 켜놓아야 하는 스위치

항상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정보가 이전에 제시된 정보인지 새로운 정보인지 구분하는 스위치를 켜 놓아야 한다고 했다. 보안성 개념에서 ①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렵다는 성질'은 앞에서 '무결성'이라고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때, 반응을 해주면서 **아! 그러면 보안성이 무결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인지해주면 된다.**

이때, 같은 의미 다른 표현에 주의하도록 하자. 위에서 설명한 요소를 끌고 내려와서 서술할 때, 이 지문에서처럼 '무결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라고 쓰지 않고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념 정의 나오면 의식적으로 잘 파악하고 이후 이 지문과 같은 방식으로 쓰면 반응해줘야 한다.

결국, 정보가 이렇게 정리되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 ↳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 ↳ **블록체인**
 - ↳ **노드**
- ↳ ①~⑤ **블록체인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
- ↳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
- ↳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 ↳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 ↳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 ⑦(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 ↳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 ↳ **보안성**
 - ↳ **탈중앙성**
 - ↳ **확장성**
 - ↳ **확장성이 높다는 것**
 - ↳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려고 할 때 /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
- ↳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저 문장들은 해당 범주를 대표하는 문장들이다. 그 범주의 다른 문장들이 저 문장으로 모인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정보를 저렇게 덩어리 지으며 체계 있게 목차 짜듯이 읽어 내려갔으면 된다.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	①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	⋮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	④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⑤

정답: ④

[정답 판단의 근거]

지문을 읽을 때 범주 파악을 잘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증명의 한 예가 아니라, 작업증명이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이다.

[오답 선지]

① : STEP 2에서 설명한 대로 정보를 주제 직결 키워드 “블록체인 기술”에 붙이면서 범주 단위로 끊어 파악했으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 블록체인의 구조는 소개했지만, 응용 분야는 소개하지 않았다.

③ : 무결성과 복원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열거했으므로 전자는 적절한 설명이지만,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은 언급된 적이 없으므로 후자는 적절하지 않다.

⑤ : 노드의 정의를 잘 파악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④ : 블록체인 기술을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쪼갠 때 공통서술범주에 입각해 비교·대조를 해주라고 했었다. **근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공개형이든 비공개형이든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지문에서 제시된 차이점 외에는 모든 부분이 동일한 것이다.**

지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대라고 했으므로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은게 아니라 높다고 해야한다.

9. 윗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 ②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③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 ④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 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정답: ⑤

[정답 판단의 근거]

1문단에 제시된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 순서를 잘 파악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②노드들은 (1)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2)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시킬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일단 위 두 가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는 허용할 수 있다.

[오답 선지]

① : 1문단에 제시된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 순서를 파악하는 중 극단적인 범주를 의식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갔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③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

승인과정에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애초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② :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①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②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모든 블록이 아니라, 끊어진 모든 블록에 대해 승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서 수식어에 주의해야 한다.** ‘끊어진’이라는 수식어 하나 때문에 ‘모든 블록’의 범위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

③ : 보안성의 정의를 잘 파악했다면, 무단 변경이 어려울수록 보안성이 높다는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때, 앞에서 무단 변경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 앞에 나온 내용의 재진술이 있는지 판단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이다.)** 무결성이 높을수록 보안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결성에 대해 설명할 때 잘 넘버링하며 정리했다면 어렵지 않게 근거를 잡을 수 있다.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③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는 이 문장에 의해, 3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②

[정답 판단의 근거]

㉠은 “블록체인이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이다. 일단 지문의 내용을 보면,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앞에 문장에 ‘따라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선지 중에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지부터 봐야한다. ④에 비슷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승인이 필요하다는 맥락의 이야기임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OUT이다. 말고는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다른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선지가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 복원이 용이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허용하며 풀면 된다.. ①번부터 보면,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이 내용을 통해 말이 안되는 설명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③번은,

1문단에 제시된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 순서를 파악하는 중 극단적인 범주를 의식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갔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③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과정에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3번도 OUT

⑤번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이 내용을 통해 말이 안되는 설명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럼 2번밖에 안 남았다.

일단 이게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를 잘 파악했다면 쉽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또한, 생각해보면 어떤 노드에서 특정 데이터가 지워져도 어차피 다른 노드에 그게 중복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한 것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업체는 최근 A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 ①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 ②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 ③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 ④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 ⑤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② : 공개형이나 비공개형이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문에 주어진 인과 관계를 잘 파악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 따라서 노드 수가 증가하면 보안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노드 수가 증가하면 확장성이 높아진다는 선지의 설명은 틀리다.

④ : <보기>를 지문과 연결지어 읽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A업체는 B업체보다 노드 수가 적기 때문에 탈중앙성이 낮은 것은 맞지만, A업체는 노드 수가 고정된 비공개형이다.

⑤ : “지문에서 개념을 쪼갠 양상 그대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럼 <보기>의 예시도 지문에서와 같이 공통 서술 범주끼리 비교해주기.” 이것을 잘 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A업체는 B업체와 달리 작업증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다르다.
 하지만, 무결성은 보안성의 한 조건이기 때문에, A와 B의 보안성을 비교해보면,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A가 노드 수가 적기 때문에 보안성이 낮다. 따라서 무결성도 A가 B보다 낮다. 따라서 무결성이 높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③

<보기>를 지문과 연결지어 읽기

<보기>도 지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문의 내용과 붙이면서 읽어야 한다. 선지로 넘어가기 전에 애초에 <보기>를 읽을 때부터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연결해 놓아야 한다는 소리다.

A업체 : 노드 수 고정 (비공개형), 현재 노드 10개, 작업증명보다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 사용
 B업체 : 노드 수 제한 X(공개형), 현재 노드 200개, 작업증명 사용, A업체보다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 향상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지문에서 개념을 쪼갠 양상 그대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럼 <보기>의 예시도 지문에서와 같이 공통 서술 범주끼리 비교해주기.”

“이때, 공개형이나 비공개형이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언급한 저 차이점 빼고는 둘의 공통점으로 봐야 한다.”

[정답 판단의 근거]

공개형이나 비공개형이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문에 주어진 인과 관계를 잘 파악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이 인과 관계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공개형과 비공개형 모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선지]

① :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이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하고 넘어갔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A업체는 작업증명보다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따라서 보안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선지에서 보안성이 높아진다고 했으므로 틀린 선지다. / 지문에서 확장성의 정의를 잘 파악했다면, <보기>에서 노드 수가 고정된 A업체의 확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①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만큼 성능이 높고,
 ⇒ <보기>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 <보기>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업체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여지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2분 이상 끊김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2.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 ②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 ③ 영화에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 ④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어떠한가?
- ⑤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1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 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②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솜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솜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④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솜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14.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 ①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 ③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 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
- ④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⑤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15.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②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 ④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⑤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바쟁(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첫째 번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뻔한 결말은 아쉬웠다.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 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 담았기 때문이다.
- ②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③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과 ㉡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과 ㉡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 ④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 ⑤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개선(改善)된
- ② ㉡: 파괴(破壞)할
- ③ ㉢: 대면(對面)하는
- ④ ㉣: 기용(起用)하는
- ⑤ ㉤: 해소(解消)한다

4

국어 영역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 ①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	...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 ④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 ②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③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 ④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 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비공개
<보기>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 ①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군.
- ②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 ③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 ④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 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전의 상태이다.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짧은 (순서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순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국어 영역

5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 테이크는 하나의 샷이 1~2분 이상 끊임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깥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바깥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④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 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①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구체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 비유된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계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2.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②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③ 영화에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④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어떠한가?
⑤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1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 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②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샷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③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샷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④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샷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광장의 균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14.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깥'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 ① 바깥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② 바깥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③ 바깥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 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
④ 바깥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⑤ 바깥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15.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 ㉣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바깥(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 첫 번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현실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 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 두 번째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부까지 나쁜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뻘한 결말은 아쉬웠다.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 ㉠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 담았기 때문이다.
- ㉡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와 ㉣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와 ㉣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 ㉣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 ㉤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개선(改善)된
- ㉡ ㉡: 파괴(破壞)할
- ㉢ ㉢: 대면(對面)하는
- ㉣ ㉣: 기용(起用)하는
- ㉤ ㉤: 해소(解消)한다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①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②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③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④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바쟁은 ⑤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⑥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1)(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2)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⑥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2분 이상 끊김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③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④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 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알맹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내용]

시작과 동시에 영화에 대한 바쟁의 견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지문은 주장·견해 지문인 것이다. 주장·견해 지문을 SSUL은 어떤 방식으로 읽어 내려가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주장·견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 어떤 것에 대한 누구의 주장·견해인지 ‘키워드’ 잡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지문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글의 화제를 잡는 것이다. 글의 초반부에서 ‘어떤 화제에 관해 주장·견해를 설명하는지’ 잡아야 한다.

2. 간간하게 끊고, 과하게 넘버링하며 읽기

주장·견해 지문의 특성상 견해가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나열된 각각의 항목들이 언뜻 보면 되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어서 그냥 나열된 각각의 항목을 몽개서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에서 견해에 대해 물어볼 때 그렇게 몽개서 하나의 의미로 읽어버리면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할 정도로 넘버링하는 것’ 뿐이다. 안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과하게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인지는 앞으로 이어질 설명에서 꼭 보여줄 것이다.

“일단 꼭 읽어보니 견해가 나열되는군. 그럼 일단 넘버링 하기 전에 이게 뭐에 대한 견해인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보니까 영화에 대한 견해네. 그럼 영화에 대한 바쟁의 견해를 꼭 넘버링 하면서 읽어야 겠다.”

- ①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
- ②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
-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③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④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
- ⑤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①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②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③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④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 상태이다. 바쟁은 ⑤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⑥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1)(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2)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 (몬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몬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 바쟁은 ⑦몬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⑥깨뜨릴 뿐만 아니라 ⑧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⑨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1)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2)(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 (3)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2분 이상 ~~끊임~~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⑩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 ⑩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 화면 속 공간(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바쟁은 ⑪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정확~~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⑫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⑫(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⑩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이어서 제시되는 ⑪ / ⑫견해를 넘버링하며 독해를 마무리 해주면 된다.

< 초반부 이후 독해 >

실시간으로 스위치 세 개를 계속 켜놔야 한다.

1.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이 앞의 내용에 대한 재진술·구체화인지, 아니면 범주가 다른 내용인지 판단
2. 한 범주가 끝날 때마다 해당 범주의 정보 덩어리가 전체 글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목차 만드는 느낌으로 읽기
3. 키워드에 대한 주장·견해가 이 글의 화제라는 것을 잊지 않기.

[내용]

⑥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

"바쟁이 영화감독을 두 개로 쪼갰군. 각각의 설명을 잘 구분하고, 그 둘을 공통 서술 범주에 입각해서 비교 대조 해줘야겠어."

(1)(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2)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

"바로 이어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대한 특징 두 가지가 나열된다. 지문 위에 두 설명을 넘버링하고, 위와 같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연결해 범주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어서, 예시가 등장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시가 등장할 때 항상 '일반적인 설명-그 예시' 이렇게 제시된다. 이때, 예시를 읽으면서 '일반적인 설명에서의 요소와 예시에서의 요소를 연결시키며 읽어야 한다.' 그렇게 연결 지으며 일반적인 설명을 이해하는데 활용하면 된다.

(몬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내용을 읽으니, 지금까지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대한 기본정보를 깔아주고, 이제 이에 대한 바쟁의 견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넘버링 해줘야겠다. (★키워드에 대한 주장·견해가 이 글의 화제라는 것을 잊지 않기.)

⑦몬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⑥깨뜨릴 ⑧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⑨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문단이 바뀌며 또다른 견해가 등장하고, 이어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가 등장하면서 '현실을 믿는 감독'과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비교하는 동시에 현실을 믿는 감독에 대한 기본정보를 세팅한다. 나열하기 때문에 넘버링하면서 읽었다.

(1)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 (2)(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3)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 롱 테이크는

앞 문단과 구조가 똑같다. 견해 제시->기본정보 세팅->견해 제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 사용한 장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

1. 요소 쪼개서 나열

어떤 요소를 쪼개고, 이를 나열할 때는 의미 단위로 쪼개면서 각각의 요소를 넘버링 하며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 해당 부분을 SSUL이 어떻게 읽었는지 보면 된다.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

(1)(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2)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주력한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1)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2)(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 (3)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2. 괄호 활용

SSUL은 지문을 읽을 때 괄호를 정말 많이 활용한다. 주로 수식어구나 수식어구처럼 어떤 단어에 걸려있는 정보 덩어리, 혹은 하나의 문장 요소 (주어, 목적어 등)가 엄청 길어질 때 이를 묶어주는데, 그게 정보 파악에 있어 엄청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2)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1)(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2)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주력한다. /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1)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2)(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C)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낸다.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3. 용어의 개념·정의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개념·정의 파트가 나오면, 해당 단어에 박스치고 필요하면 2~3번 정도 읽으며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용어가 무엇인지 알려준 이후에 평가원은 학생이 그 용어의 뜻을 안다는 전제 하에 글을 쓰기 때문이다.

디프 포커스

롱 테이크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 사용한 장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

4. 극단적 범주

양 극단에 있는 범주를 뜻하는 용어는 내용 파악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ONLY(다만, ~만, 오직 등) <-> ALL(모든, 항상 등)" 과 같은 워딩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 극단적 범주를 일부러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10)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5. 지문 위에 남기는 시각적 모델링

지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지문 위에 모델링 해놓으면 정보 파악이 훨씬 수월하다.

(A) ~가 아니라, ~없이 등의 표현이 나올 때 '~에 X표시

하나의 숏이 1~2분 이상 끊임 없이 길게 진행

(11)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12)(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B) () = ()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C)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낸다.

(C) 연결되는 정보끼리 직접 연결시키기

(3)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 롱 테이크는

(D) 요소를 쪼갤 때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6. 나열되는 경우

견해, 어떤 요소에 대한 특징 등 '나열'이 지문에 등장하면, 해당 범주에 속하는 항목끼리 넘버링을 해주는 것이 좋다. 보통 나열된 부분을 답에 근거로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넘버링하면서 읽으면 놓치는 내용이 줄어들고, 독해에 집중하는 데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이 지문은 애초에 견해 지문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견해에 넘버링하며 읽었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한 견해의 범주에서 기본 정보를 까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열에도 넘버링을 해야 한다. 이때 숫자가 똑같으면 이게 뒤에 대한 항목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의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 지문에서 SSUL은 (2)와(2)를 사용했다.

(1)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2)(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 (3)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이 지문 set는 (가)-(나)형 지문이기 때문에, (가)를 읽고 나서 (가)만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를 털고 (나) 독해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지금 (가)로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는 모두 털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2.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 ②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 ③ 영화에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 ④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어떠한가?
- ⑤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가)에 대해 적절한지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다. (나)를 읽고 최종 판단할 때, 애초에 (가)에 부합하지 않는 선지는 거르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 후보지를 줄일 수 있다.

① : 바쟁의 견해를 넘버링하며 읽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①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따라서 1번 선지는 (가)에 대해 적절하다.

② : 바쟁의 견해를 넘버링하며 읽고, 기본 정보를 잘 확보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바쟁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1)(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여기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형식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쟁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찾을 수 있기에 2번 선지도 (가)에 대해 적절하다.

③ : (가) 지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된 적이 없다.

(가)에서부터 이미 OUT

④ :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이 언급된 적이 없다.

(가)에서부터 이미 OUT

⑤ : 역시 지문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가)에서부터 이미 OUT

⑤ : 바쟁의 생각을 잘 넘버링하며 읽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⑩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선지에서는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라고 했는데, 지문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 화면 속 공간 전체에서 '사물, 화면 속 공간 전체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배경에 시선에 옮기며도 허용할 수 있다.

1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 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②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샷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샷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④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사자가 시숨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샷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정답 : ③

[정답 판단 근거]

극단적 범주를 암시하는 위딩을 보면 의식적으로 체크하고 범주를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했다. 이를 잘 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샷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극단적 범주를 그냥 흘려 넘겼다면, 지문에서 원근감을 드러낸다고 설명했기에 뭔가 이 선지가 맞는 말 같아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샷 전체를 선명하게' 라고 설명했으므로 배경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은 틀렸다.

① :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항상 '~를 통해 ~한다.' 와 같이 서술하면, SSUL은 '~를 통해 부분에 괄호를 치며 읽는다. 가출을 풀다 보니 그 부분이 선지에 자주 출제되었어서 습관으로 만든 것이다.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선지다.

② : 또한 (짧은 샷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이 부분도 '~를 통해 ~한다.' 와 같은 서술이다.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선지다.

④ : 롱 테이크는 하나의 샷이 1~2분 이상 끊김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요소를 쪼개서 각각을 설명할 때, 롱 테이크의 개념과 효과를 잘 파악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선지다.

14.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관객은 ①(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②(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 ③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④관객은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⑤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 ①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 ③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 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
- ④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⑤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정답 : ⑤

당연한 소리지만, 비판은 항상 '나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포인트에 대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기>의 주장과 바쟁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선지의 비판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서 풀면 된다. 내용 일치 문제와 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정답 판단 근거]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 바쟁은 감독을 두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감독이 사용하는 연출 방식이 관객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했으므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

+

이는 <보기>의 표현을 빌려 나타내면 '감독의 의도대로 관객이 작품을 해석한다.'와 같이 때문에 <보기>의 견해와 바쟁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음.

+

또한, 감독이 관객의 해석을 결정하므로 '우위에 있다'는 선지 표현도 적절함
⇒ 따라서 적절한 비판이다.

① : 애초에 <보기>의 입장은 ①(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와 같다. 따라서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 자체가 <보기>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②(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애초에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쟁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바쟁의 견해를 잘 넘버링하며 읽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③ : 바쟁은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을 나눈 것이 아니라, 연출 기법 차이를 기준으로 감독을 나눴다. 바쟁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바쟁의 견해를 잘 넘버링하며 읽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나열될 때 항목별로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냥 바쟁이 '부정적으로 봤다'고 뭉개서 읽어버리면 '연출 역량 차이'라는 워딩을 봤을 때 그냥 그런겁다 하고 뭉개서 풀어버리기가 쉽다.)

④ : ④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그리고, 현실을 믿는 감독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1)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2)(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따라서 바쟁은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선지에서는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쟁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1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바깥(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첫째 번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부까지 산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뻘한 결말은 아쉬웠다.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 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 담았기 때문이다.
- ②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③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과 ㉡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과 ㉡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 ④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 ⑤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③ : 바깥의 관점에서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은 디프 포커스, 롱 테이크, 자연광 이용, 일반인 배우, 열린 결말이다. 컴퓨터 그래픽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다. '컴퓨터 그래픽' 앞에 붙어 있는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로'에 꽂히지 말자. **컴퓨터 그래픽이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인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깥이 하는 것이다.**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의 컴퓨터 그래픽" 이니까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 -> **이건 주관이 들어간 '생각'일 뿐이다.** 문제를 풀 때는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지문을 근거로 삼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만 읽고도 3번 선지는 OUT

< 보기 >를 지문과 연결지어 읽기

< 보기 >도 지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문의 내용과 붙이면서 읽어야 한다. 선지로 넘어가기 전에 애초에 < 보기 >를 읽을 때부터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연결해 놓아야 한다는 소리다.

㉠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 열린 결말
 -> 바깥이 선호하는 영화

㉡

뻘한 결말 -> 미결정 상태가 아님, 결정 상태 -> 바깥이 선호하지 않음

① : 지문에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고 했고,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감독'은 '현실을 믿는 감독'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두 범주를 섞어 선지를 구성했으므로 틀렸다. (가)만 읽고도 1번 선지는 OUT

② : 지문에서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는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틀린 이유 1]

바깥의 견해 12번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영화 감상문을 보면, ㉠에 대해 뻘한 결말은 아쉬웠다고 한다. 지문에 따르면,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가 미결정이기 때문에 결말이 뻘한 영화는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영화가 되어 결정 상태가 되버린다.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도 결국 '뻘한 결말을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가 되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12번을 만족하지 않고, 따라서 ②는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틀린 이유 2]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였기' 때문이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다. 애초에 미결정 상태가 아니어서 틀린 선지이긴 하지만, 미결정 상태가 맞다고 해도 틀린 선지다.
 (가)만 읽고도 2번 선지는 OUT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 ①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②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 이런 (1)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3)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4)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5)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6)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7)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③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④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③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④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 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알맹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내용]

시작과 동시에 영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견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지문은 주장·견해 지문인 것이다. 주장·견해 지문을 SSUL은 어떤 방식으로 읽어 내려가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주장·견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 어떤 것에 대한 누구의 주장·견해인지 '키워드' 잡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지문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글의 화제를 잡는 것이다. 글의 초반부에서 '어떤 화제에 관해 주장·견해를 설명하는지' 잡아야 한다.

2. 간간하게 끊고, 과학계 넘버링하며 읽기

주장·견해 지문의 특성상 견해가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나열된 각각의 항목들이 언뜻 보면 되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어서 그냥 나열된 각각의 항목을 몽개서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에서 견해에 대해 물어볼 때 그렇게 몽개서 하나의 의미로 읽어버리면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할 정도로 넘버링하는 것' 뿐이다. 안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과학계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인지는 앞으로 이어질 설명에서 꼭 보여줄 것이다.

"일단 꼭 읽어보니 견해가 나열되는군. 그럼 일단 넘버링 하기 전에 이게 뒤에 대한 견해인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보니까 영화에 대한 견해네. 그럼 영화에 대한 정신 분석학적 견해를 꼭 넘버링 하면서 읽어야 겠다."

- ①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 ②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

(1)~(7)

(2)에서 '동일시 현상'에 대해 (1)~(7)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이때, 동일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나열하기 때문에 넘버링을 해주어야 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② 내부에서의 내용 구체화이기 때문에 넘버링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게 새로운 견해가 아니라 2번 견해 하에서의 범주라는 것을 나타내면 된다.) + (7)에서부터 견해 ③이 파생되고 있다.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 이런 (1)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3)(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4)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5)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6)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7)(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1)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2)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3)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 (4)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1)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2)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는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3)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 ㉧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초반부 이후 독해]

실시간으로 스위치 세 개를 계속 켜놔야 한다.

1.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이 앞의 내용에 대한 재진술·구체화인지, 아니면 범주가 다른 내용인지 판단
2. 한 범주가 끝날 때마다 해당 범주의 정보 덩어리가 전체 글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목차 만드는 느낌으로 읽기
3. 키워드에 대한 주장·견해가 이 글의 화제라는 것을 잊지 않기.

[내용]

㉣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1)~(4)
 "(1)~(4)에서 ㉣ 견해에 대해 구체화 하는구나."
 ㉥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
 "그리고 (1)~(4)로부터 ㉥ 견해가 도출되고 있어."

(1)~(3)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니 ㉦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범주의 설명이 제시되네. 견해는 아니고...나열되고 있으니 일단 넘버링하면서 정리해야겠다."

"(1)~(3)은 결국 ㉧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 사용한 장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

1. 극단적 범주

양 극단에 있는 범주를 뜻하는 용어는 내용 파악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ONLY(다만, ~만, 오직 등) ↔ ALL(모든, 항상 등)" 과 같은 워딩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 극단적 범주를 일부러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④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1)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2. 괄호 활용

SSUL은 지문을 읽을 때 괄호를 정말 많이 활용한다. 주로 수식어구나 수식어구처럼 어떤 단어에 걸려서 의미를 더해주는 정보 덩어리, 혹은 하나의 문장요소 (주어, 목적어 등)가 엄청 길어질 때 이를 묶어 주는데, 그게 정보 파악에 있어 엄청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④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는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⑦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3. 용어의 개념·정의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개념·정의의 파트가 나오면, 해당 단어에 박스치고 필요하면 2~3번 정도 읽으며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용어가 무엇인지 알려준 이후에 평가원은 학생이 그 용어의 뜻을 안다는 전제 하에 글을 쓰기 때문이다.

특히 '용어의 개념·정의가 수식어로 주어지는 경우'에 주의하자.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⑦(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 사용한 장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

4. 지문 위에 남기는 시각적 모델링

지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지문 위에 모델링 해놓으면 정보 파악이 훨씬 수월하다.

(A) ~가 아니라, ~없이 등의 표현이 나올 때 '~에 X표시

(5)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B) () = ()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④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는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C) '따라서' (인과 관계)

(1)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7)(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③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D) 연결되는 정보끼리 직접 연결시키기

이런 (1)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5. 나열되는 경우

견해, 어떤 요소에 대한 특징 등 '나열'이 지문에 등장하면, 해당 범주에 속하는 항목끼리 넘버링을 해주는 것이 좋다. 보통 나열된 부분을 답에 근거로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넘버링하면서 읽으면 놓치는 내용이 줄어들고, 독해에 집중하는 데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이 지문은 애초에 견해 지문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견해에 넘버링하며 읽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한 견해의 범주에서 기본 정보를 까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열에도 넘버링을 해야 한다. 이때 숫자가 똑같으면 이게 뒤에 대한 항목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의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 지문에서 SSUL은 ②와(2)를 사용했다.

④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1)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2)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3)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 (4)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⑤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이 지문 set는 (가)-(나)형 지문이기 때문에, (가)를 읽고 나서 (가)만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를 털었다. 이제 남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된다.

12.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 ②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 ③ 영화에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 ④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어떠한가?
- ⑤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답 : ①

< comment >

야까 (가)만 읽고 ③,④,⑤를 날렸기 때문에 ①,② 중 (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된다.

① :
지문에서
③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영화를 몽상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견해를 넘버링하면서 읽었으면 쉽게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 이것은 (가)에서만 언급되었고, (나)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다.

15.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②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 ④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⑤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 ①

< comment >

이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지문의 10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다. 지문의 특정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일단 글의 내용 중에 그 이유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아서 그게 선지에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내용 일치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추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 지문의 10번 문제처럼

1. 일단 내용일치 차원에서 OUT인 선지 지우고,
2. 내용이 맞는 선지들은 ㉠ 과 범주가 맞는지 판단
3. 범주가 맞으면 그 선지를 ㉠의 이유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렇게 푸는 것이다.

[정답 판단 근거]

① : 일단 ㉠주변에는 그 이유가 제시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다른 위치에서 제시된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이때,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니라 견해 지문인 만큼 넘버링한 부분 위주로 먼저 찾아주는 것이다. 지문을 보면,

②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후에 동일시 현상으로부터 (1)~(7)의 설명이 제시되고, 이로부터 '따라서'로 연결되며 ③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와 같은 견해가 도출된다. 이때, ㉠의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은 '일종의 몽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7)의 설명이 선지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확인해 보니, ①선지는 (1)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와 일치한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②,③,⑤선지는 내용 일치 차원에서 OUT이고, ④선지는 내용에 있긴 하지만 범주에서 OUT이다.

1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비평(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 첫 번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 두 번째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뻘뻘한 결말은 아쉬웠다.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 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 담았기 때문이다.
- ②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③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과 ㉡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과 ㉡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 ④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 ⑤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개선(改善)된 ② ㉡: 파괴(破壞)할
- ③ ㉢: 대면(對面)하는 ④ ㉣: 기용(起用)하는
- ⑤ ㉤: 해소(解消)한다

정답 : ⑤

< comment >

야까 (가)만 읽고 ①,②,③를 날렸기 때문에 ④,⑤중 가장 적절한 것을 판단하면 된다.

㉠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

⇒ 동일시

㉡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짐

⇒ 동일시

④ :

지문에서 대안적 영화는,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⑦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

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의한다. 하지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에서는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대안적 영화의 정의 OUT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영화가 끝나고 비판적 관점을 가졌으니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는 대안적인 영화임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 지문에서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영화가 끝나고 비판적 관점을 가진 것만으로는 저 설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저 설명은 '영화를 보는 도중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

<보기>를 읽을 때부터 지문과 연결하며 읽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 ⇒ 동일시

㉡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짐

⇒ 동일시

(7)(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동일시 현상에 대한 구체화에 해당하는 설명을 잘 넘버링하며 읽었다면, 답의 근거를 쉽게 잡을 수 있다.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가 곧 '허구적 세계' 이므로,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결국, 정보가 이렇게 정리되었어야 한다.

(가)

- ①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
- ②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
- ③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
- ④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
- ⑤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 ⑥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
 - ↳ (1)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 ↳ (2)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 ↳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 ⑦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⑥ 깨뜨릴
- ⑧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
- ⑨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 ↳ (1)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
 - ↳ (2)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 ↳ (3)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 ⑩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 ⑪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④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 ⑫(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

(나)

- ①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 ②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
 - ↳ (1)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
 - ↳ (2)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
 - ↳ (3)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 ↳ (4)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
 - ↳ (5)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 (6)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
 - ↳ (7)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 ③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 ④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 ↳ (1)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 ↳ (2)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 ↳ (3)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 ↳ (4)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 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
 - (1)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 (2)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쇠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 (3)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 ↳ ⑥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 ↳ ⑦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섭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 총정리 comment >

1. 전체적인 난이도

매우 쉬웠다는 것을 등급컷이 증명해준다. 하지만, 2022학년도의 선례를 절대 잊으면 안된다.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2022학년도와 비슷하다. 6평 등급컷도 그때와 비슷했고, 9평이 엄청 쉬웠다. 그 결과,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올해가 2022학년도 국어만큼 매운맛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때와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래도 꽤 의미가 있다. 자만하지 말고, 6평과 9평을 통해 수능에 어떤 비문학 지문이 출제될지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더 열심히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

2. 주목해야 하는 문제

[9월 모의고사 #10, #15]

모두 지문의 특정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이유를 물어봤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추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용 일치 문제로 끝날 수도 있다.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일단 글의 내용 중에 그 이유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아서 그 선지에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내용 일치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추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 지문의 10번 문제처럼

1. 일단 내용일치 차원에서 OUT인 선지 지우고,
 2. 내용이 맞는 선지들은 ㉠ 과 범주가 맞는지 판단
 3. 범주가 맞으면 그 선지를 ㉠의 이유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
- 이렇게 푸는 것이다.

내용 일치 문제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10번 문제처럼 추론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서 10번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은 축에 속했다. 추론 문제는 6월 모의고사 13번 문제에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능에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론 문제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대비는, 기출에서 추론 문제가 출제된 것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어떤 사고 과정을 요구했는지를 분석해보면 된다.

3. 니열

9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에서는 설명을 나열하듯이 제시하는 부분이 많았다. 수능 때도 이런 방향으로 지문을 쓸 수 있으니, 기출에서 비슷한 지문을 찾아 연습해 보도록 하자. 이번 모의고사 (가)-(나)형 지문은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가)-(나)형 지문과 지문을 쓴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둘 다 견해를 넘버링하며 읽어야 내용 정리가 쉬운 지문이었다. 혹시 안 풀어봤다면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자.

4. 원칙 ⇔ 예외 / 일반적인 경우 ⇔ 특수한 상황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지문에서는 대놓고 원칙과 예외를 잘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게 출제되었고, <블록체인 기술> 지문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지 않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라는 워딩을 썼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임의법규 지문이 이런 메커니즘을 활용한 지문이다.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자.

5. 블록체인 기술에서의 시각적 모델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읽고 옆에 간략하게 그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다면 머릿속으로 그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여러번 거치지 않아도 되고, 지문 이해에 도움도 된다고 했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면 훨씬 독해가 수월한 지문들을 연습해보도록 하자.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PCR 기술]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LFIA 키트]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